

к с і

새로 발견된 小岳樓 李滌의 가사 몇 편에 대하여

- 작자 고증과 창작 연대 추정을 중심으로 -

김팔남*

<차 례>

- I. 여는 말
- II. 『古時憲書裏寫本歌詞集』의 서지와 小岳樓 李滌의 略傳
 - 1. 서지 사항
 - 2. 소악루 이유의 약전
- III. 주요 창작 공간, 작품 해석을 통한 작자와 창작 연대 찾기
 - 1. 장릉 참봉과 영월, 그리고 단종 단상
 - 2. 동북 현감, 송덕 찬양의 치인
 - 3. 양천의 소악루, 강산 주인으로서의 삶
- IV. 새로 발견된 가사의 시가문학사적 의의
- VI. 맺는 말

I. 여는 말

고전 시가의 연구는 첨단 과학기법이 학문에 널리 활용되는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연구자들에게 많은 고민을 안겨 주는 영역임에는 틀림이 없는 듯하다. 지나간 역사와 삶을 담고 있는 시가 작품은 때로는 작자가 유실되기도 하고, 잘못 유전되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문학사의 흐름을 면면히 잇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품의 올바른 평가와 감상은 자료의 기초적

* 목원대학교

인 사향을 얼마만큼 지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다행스럽게도 새로운 작품은 계속하여 발굴되고 이를 방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공개되며 연구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고민에서부터 출발한다.

필자는 몇 년 전, 고 강전섭 선생으로부터 『古時憲書裏寫本歌詞集』¹⁾을 소개 받았다. 이 자료는 박규홍 교수가 처음으로 학계에 공개한 것이다.²⁾ 여기에는 <玉屑歌>, <女僧歌>, <回心曲>, <勸勉行實歌 : 文參議 所作>, <春眠曲>, <湖南歌>, <想思別曲>, <南草歌>, <忠孝歌 : 李太守自作>, <老人歌>, <玉京夢遊歌 : 福川 李太守自作>, <四郡別曲>, <望美人歌 : 李太守自作> 등 13편의 가사와 “靑天에 우는 鶴아 春景을 願지 마라 // 春景이 도타흔들 雪景과 긋툐소냐 // 雪景이 도타흔들 月景과 긋툐손가”라는 시조 1수가 실려 있다. 이것들 중에서 <회심곡>·<춘면곡>·<상사곡>·<여승가>를 제외한 나머지 9편은 아직 학계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것이었다. 필자는 『고시헌서이사본가사집』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먼저 수록 자료 중에서 작자를 ‘福川 李太守’라고 기록하고 있는 <충효가>, <옥경몽유가>, <망미인가>의 세 편에 관심을 갖고 탐색한 결과, 이미 두 편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³⁾

그러나 앞의 논문에서 필자가 미처 밝혀내지 못하였던 ‘복천 이태수’라는 작자를 계속하여 고민하고 탐구하던 중,⁴⁾ 근자에 이것을 해결할 수 있

1) 이 명칭은 자료의 특성을 살려 고 강전섭 선생이 이름 붙인 것이다. 필자는 선행 연구의 업적을 받아 들여 이후에는 이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小岳樓 李 / 柔의 <子規三疊> 과 <四郡別曲>에 대하여, 『고시가연구』 12,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1~15쪽 참조).

2) 박규홍, 「석하 소장 고시헌서철에 필사된 시가작품」, 『서지학보』 8(한국서지학회, 1992), 97~120쪽.

3) 김팔남, 「복천 이태수작 <망미인가>의 주제 형상화 고찰」, 『어문연구』 43(어문연구학회, 2003), 279~305쪽.

김팔남, 「<옥경몽유가>의 이상 세계 표출 방식」, 『어문연구』 49(어문연구학회, 2005), 67~94쪽.

4) 필자는 1992년에 발표한 앞의 논문(285, 294쪽)에서 <옥경몽유가>의 작자 모색의 단초가 되었던 ‘복천 이태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론한 바 있다. 먼저 ‘福川’은 현재 함

는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즉 <옥경몽유가>의 중요한 창작 배경이 되고 있는 ‘小岳樓’와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이었다. 이 논문의 단서가 되었던 ‘소악루’에 대하여는 『고시헌서이사본가사집』을 먼저 접하신 강전섭 선생의 선행 연구가 있다. 선생은 이 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四郡別曲>의 작자를 숙중 조에 생존하였으며, 시조 <子規三疊>을 지은 ‘소악루 李滌’와 동일 인물이라고 판명하였다.⁵⁾

다음으로 문제 해결의 열쇠인 ‘소악루’는 현재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에 실재하는 누정이며, 조선후기 실경화의 새로운 경지를 연 謙齋 鄭澈(1676~1759)의 주요한 창작 공간이었다. 그는 이곳을 배경으로 하는 <小岳候月>과 <小岳樓>라는 그림을 남기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정은 위의 논문에서 거론한 소악루 이유와 무관하지 않았다. 필자는 현장을 답사하고 소악루의 승경을 감상하기도 하면서 그 흔적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소악루 이유의 종손을 비롯한 후손 몇 분과의 대담, 그리고 그들이 소장하고 있던 족보를 확인함으로써 위의 세 작품의 작자를 ‘소악루 이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고 강전섭 선생께서 이미 작자 논의를 전개한 가사 <사군별곡>을 포함하여 <망미인가>, <옥경몽유가>, <충효가>의 작자를 다음과 같은 방법에 주목하여 고증할 것이다. 먼저, 작자의 전기적인 사실을 간략하게나마 전하고 있는 족보 『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를 중심으로 삼고, 작자의 삶의 편린을 보여주고 있는 『陽川郡邑誌』, 『同福縣邑

경남도 소재의 ‘端川’과 전라도 소재의 ‘同福’에 대한 옛 지명이라는 것을 찾아냈다. 따라서 필자는 <망미인가>가 함경남도 단천(고호는 복주, 복천)의 태수로 부임하였을 때에 지어진 작품으로 파악하고, 오랜 외직 생활을 수행하는 동안에 자신이 군주에게로 부름 받지 못하는 심정을 버려진 여인에 비유하여 자신의 연군을 토로한 것으로 여겼다.

이후에 필자는 ‘소악루’를 탐색하던 과정에서 전주이씨 선성군파 <족보>를 확인한 결과 이유가 ‘동북 현감’을 지냈다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서 앞의 논문에서 잘못 밝힌 사항들을 바로 고치고자 한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본문 III-2에서 살펴 볼 것이다.

5) 강전섭, 위의 논문(2003), 1~15쪽 참조.

誌』의 자료들을 차례로 비교하여 작자의 약전을 제시하려 한다. 다음으로 약전과 작품들의 가사 내용을 대교하고 해석함으로써, 이 작품들의 작자가 소악루 이유라는 사실을 새롭게 밝혀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가사 4편에 대한 작품 평과 시가문학사적 의의를 살펴보려 한다. 이 논의 과정에서 필자가 이미 발표하였던 논문들이 수정·보완되기를 바란다.

II. 『古時憲書裏寫本歌詞集』의 서지와 小岳樓 李滌의 略傳

여기에서는 앞서 제시한 가사 4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古時憲書裏寫本歌詞集』의 서지를 살펴보고, 『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 『陽川郡邑誌』, 『同福縣邑誌』를 중심으로 소악루 이유의 약전을 구성하여 보려고 한다.

1. 서지 사항

필자는 『古時憲書裏寫本歌詞集』과 관련하여, 최근 박규홍 교수와의 전화 통화에서 원자료를 보고 싶다는 소망을 전달하였다. 박 교수는 이 자료가 본래 제 3자가 소장하고 있었던 것이었으나, 연구를 위하여 권영철 교수가 잠시 지니고 계시다가 박 교수에게 건네준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권영철 교수가 돌아가신 지금에는 소장자를 찾을 수 없다는 말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이러한 이유로 필자는 『고시헌서이사본가사집』을 처음으로 학계에 공개한 박 교수의 연구를 정리하여 그 서지를 제시하여 본다.⁶⁾

첫째, 권영철 교수로부터 넘겨받은 『時憲書』는 조선 후기 매년 사대부들에게 배포되었던 것으로, 거기에는 잡다한 글들이 필사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유효 기간이 지난 『시헌서』의 뒷면에 가사 13편과 시조 1수가 필사되어 있었다.

6) 자세한 내용은 박규홍의 앞의 논문(1992) 참조.

둘째, 『時憲書』의 크기는 가로 16~17cm, 세로가 30~31cm 정도로 겉표지와 속표지를 제외하면 모두 15장(30면)으로 되어 있는데, 윗부분은 떨어져 나간 듯하다. 이 책은 총59권인데, 6권은 단권씩이고, 53책은 한데 묶여져 있는데, 해당 시가 작품은 차례로 이곳에 수록되어 있었다.

셋째, 6책은 그 기록 연대가 가장 오랜 것이 1796년(정조20)이고, 늦은 것은 1889년(고종26)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시가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53책은 1709년(숙종 35)부터 1761년(영조37)까지 53년간의 시헌서가 하나도 빠짐없이, 차례도 어긋남 없이 한데 묶여 있었다.

넷째, 이 책을 모은 사람은 金始鑣이며 수령의 지위를 거친 인물로서 경남 거창인이고, 1680년(숙종6) 즈음에 출생하여 1779년(영조35)년에 스스로 80이 되었다고 시인하고 있어 아마도 영조대 인물일 것이다.

다섯째, 가사를 쓴 필치를 보면, 한 사람이 쓴 것이라고는 보기는 어려우나, 필사자와 김시빈과의 관계도 밝힐 수 없었다. 그러나 시가가 필사되어 있는 글씨의 모양이나 상태로 보아 『시헌서』가 두껍게 묶이기 전으로 판단되는데, 김시빈의 사후 즉시이거나, 김시빈에 의하여 묶여 졌다면, 이 시가들은 영조 조에 이미 전파되어 있었거나, 창작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시헌서』의 연대와 그 이면에 필사되어 있는 시가 작품들은 다음과 같은데, 필자가 표로 정리하고 학계에서 이미 창작 연대가 밝혀진 것은 *로 표시하고 해당 연도를 적어 놓았다.

<표-1> 『고시헌서이사본가사집』 수록 작품과 창작 연대

『시헌서』 해당 연도	이면 수록 시가 작품	창작 연대 추정
丙寅(1746;영조 22)	玉屑歌	
乙丑(1745;영조 21)	女僧歌*, 回心曲(부분 수록)*	* 1723년 ⁷⁾ * 1700년대 중반 ⁸⁾
甲子(1744;영조 20)	勸勉行實歌(文參議所作) 春眠曲*, 湖南歌	* 1711년 이전 ⁹⁾
癸亥(1743;영조 19)	想思別曲	* 1727년 이전 ¹⁰⁾
戊午(1738;영조 14)	南草歌	
丙辰(1736;영조 12)	忠孝歌	
乙卯(1735;영조 11)	老人歌 玉京夢遊歌(福川李太守自作)	
甲寅(1734;영조 10)	玉京夢遊歌 계속 四郡別曲*	* 숙종조 ¹¹⁾
癸丑(1733;영조 9)	望美人歌(李太守自作) 忠孝歌(福川李太守自作) : 머리부분만 수록	
辛亥(1731;영조 7)	忠孝歌	
庚戌(1730;영조 6)	春眠曲(머리 부분만 수록)	
丙申(1716;숙종 42)	시조 1수	

7) 김팔남, 「연정가사 <승가>의 실상 고찰」, 『어문학』 81(한국어문학회, 2003), 221~243쪽 참조.

8) 김동국, 「<회심곡> 발생고」, 『우리어문연구』 21(우리어문학회, 2003), 205~230쪽 참조.

9) 김팔남, 「<춘면곡> 고찰」, 『어문연구』 26(어문연구학회, 1996), 447~463쪽 참조.

10) 김팔남, 「조선조 연정가사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1999, 47~49쪽 참조.

11) 강전섭, 앞의 논문(2003), 1~15쪽 참조.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고시헌서이사본가사집』에 수록 되어 있는 여러 편의 작품들은 박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영조대에 창작 되었거나 유행하였다는 점에서 18세기 시가 문학의 양상과 전개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한 이 논문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복천 이태수의 작품과 더불어 문참의 소작 <권면행실가>는 학계에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작품들로서 작자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조 역시 기존의 시조집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작품이라는 점에서 자료의 가치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소약루 이유의 약전

이유의 일생을 적고 있거나 생전의 사실들을 살필 수 있는 자료로 『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 『陽川郡邑誌』, 『同福縣邑誌』 등은 작품의 작자를 규명하여 내는 데에 중요한 증언이 된다.

1) 『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의 기록

字仲久 號笑窩

肅宗一乙卯一六七五年三月八日生 英祖二十九癸酉一七五三年九月二日卒

一九七八年戊午二月二十八日 坡州廣灘龍尾里惠陰嶺 設壇丁坐

甲午生員 連除洗馬衛率 皆不就 壬子 以伯氏溲命出 肅莊駿參奉 歷禁都監察 甲寅 拜同福縣監 丁巳 棄官 士民立石頌之

公文章鳴 尤邃性理學 與屏溪南塘相討論 有人物心性同異之辯所主 巴陵卽唐人所稱小岳陽 公模得岳樓制度而創建之 名曰小岳樓 以詩酒琴歌 逍遙其間 趙悔軒觀彬尹圃巖鳳朝李槎川秉淵 諸公往往來會酬唱 有文時調數首 및 小岳樓復元¹²⁾

12) 『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는 1807년(정묘보) 『璿源譜略』을 근거로 하여 초판이 발간되었고, 2001년(신사보) 마지막까지 총 7차례의 증보를 거쳐 지금에 이른다.

2) 『陽川郡邑誌』의 증언

<樓亭>

岳陽樓舊址 有小岳樓 李縣監澐(字仲久 號笑窩 又號小岳樓)所構 英宗朝 以同福縣監棄官而歸 模得中國岳陽制度 創建之 名曰小岳樓 與趙梅軒觀彬尹圃巖鳳九¹³⁾李槎川秉淵 諸名士酬唱 風流勝槩 擅名一時 黃正卽嘏詩曰 斯樓高下渾相合 列岫如屏江作池(遺址 有鑿石盥濯處 時人謂之盥巖)

<塚墓>

李縣監澐 墓銀杏亭里

<鄉賢古蹟>

李縣監澐(字仲久全州人號笑窩) 肅廟甲午 舉司馬 連除洗衛率 皆不就 英廟壬子 以其伯氏澐(字仲遊 號養竹齋)之命 出莊陵參奉禁都監察 甲寅拜同福縣監 丁巳棄官而歸 士民立石頌之 作歸去來詞 公早文章著世 氣節卓犖 與屏溪南塘討論 人物心性 同異之辯 以詩酒風流 名于一世 世稱江山主人¹⁴⁾

3) 『同福縣邑誌』의 기술

<郡名>

豆夫只 龜城 甕城 福川 蘿菴

<先生案>

李澐 乙卯八月到任戊午六月貶遞¹⁵⁾

위의 기술물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① 이유의 생존 시기,

13) 圃巖 尹鳳朝의 오기임.

14) 1899년(광무 3)에 필사하여 작성된 『陽川郡邑誌』는 경기도 양천의 역사적 발달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15) 필사본 『동북현읍지』는 1895년(고종 32)에 편찬된 지방지이다. <邑號>, <先生案> 조에는 동북의 지명 유래와 이유의 동북 현감 재임 기간을 알 수 있는 기록들이 수록되어 있어 작품의 작자를 추론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그리고 자·호, ② 관직 생활, ③ 소악루의 유래와 명칭, ④ 소악루에서의 삶의 모습, ⑤ 소악루의 풍경, ⑥ 교유 인물, ⑥ 저술과 총묘 등이다. 이것을 표로 정리하여 간단하게 이유의 약전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필자는 다음에서 이 약전과 작품의 내용을 서로 비교하여봄으로써 작품의 작자를 밝혀내고자 한다.

<표-2> 小岳樓 李滌 略傳

연도	간지	나이	비고
1675.3.8(숙종1년)	乙卯	출생	전주이씨. 정종의 제4왕자 宣城君 李茂生의 9세손. 세거지는 陽川(옛 이름은 巴陵, 현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궁산) 城山 동쪽 기슭임 ¹⁶⁾ . 자는 仲九, 호는 笑窩·小岳樓 ¹⁷⁾
1714(숙종40)	甲午	39세	생원이 됨. 세마위수에 연달아 제수되었으나 모두 나아가지 않음.
1732(영조8)	壬子	57세	큰 형 漣(자는 仲遊, 호는 養竹齋) ¹⁸⁾ 의 말을 듣고 莊陵 參奉으로 나감. 금부도사·감찰을 역임. 이전에 악양루 옛 터에 소악루 재건.
1735.8(영조9)~ 1738.6(영조14) ¹⁹⁾	寅-丁巳 (乙卯-戊午)	59~62세	同福(옛 이름은 福川, 현 전남 화순군 동북면) 縣監 역임. 이곳 백성들이 비를 세워 칭송함. ²⁰⁾

16) 필자가 답사를 통하여 17대손 이흥신 씨와 18대손 이상길 씨를 만나서 들은 증언이다. 현재 이상길 씨는 양천향교를 관리하고 있다.

17) 『양천군읍지』, <樓亭>조 참조.

18) 『양천군읍지』, <鄉賢古蹟>조 참조.

19) 이것은 1895년(고종32)에 편찬된 『동북현읍지』, <선생안>조에 기록되어 있는 이유의 동북 현감 재임 기간이다. 『족보』나 『양천군읍지』(1899년 편찬)에는 1734(영조 10)~1737(영조13)라고 되어 있다.

20) 현전하지 않으나, 유실된 듯함.

1738.7(영조14) ~ 1753.9.2(영조29)	戊午-癸酉	63세~ 78세(卒)	양천 귀향, 歸去來詞를 지음. ²¹⁾ 소악루를 중심으로 학문과 창작활동. 돌아가실 때까지 소악루에서 당대의 시인묵객들과 詩會와 琴歌로 말년을 보냄. '강산주인'이라 부름 ²²⁾ 병계 윤봉구, 남당 한원진, 회현 조관빈, 포암 윤봉조, 사천 이병연 등과 교류함. 묘는 銀杏亭里에 있음. ²³⁾
1978.2.28	戊午		과주시 광탄면 용미리 혜음령 남쪽에 제단을 세움. ²⁴⁾

III. 주요 창작 공간, 작품 해석을 통한 작자와 창작 연대 찾기

지금까지 드러난 자료를 토대로 필자가 정리한 약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李潏(1675.3.8;숙종 1~1753.9.2;영조 29)는 笑窩 또는 小岳樓라고 불렀으며, 소악루를 세거지로 생활하였고, 몇 차례 관직 생활을 거쳤던 인물이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그가 문학 창작의 주요한 공간으로 자신의 삶의 터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소악루 이유가 지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군별곡>, <충효가>, <옥경몽유가>, <망미인가>를 작자의 삶의 경로와 창작 공간, 그리고 작품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작자가 소악루 이유라는 것을 고증하여 보기로 한다. 이유에 관한 전기적인 사실들은 『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

21) 『양천군읍지』, <鄉賢古蹟>조 참조. 작품은 확인할 수 없었음.

22) 위의 책 참조.

23) 『양천군읍지』, <塚墓>조 참조.

24) 『족보』참조. 제 7차 재 증보(2001년) 과정에서 추가로 기록된 내용임.

를 근거로 삼고, 해석상 필요한 경우에는 『陽川郡邑誌』, 『同福縣邑誌』 등을 서로 비교하여 그 논거를 찾고자 한다.

1. 장릉 참봉과 영월, 그리고 단종 단상

‘소악루’에 대하여는 뒤에서 상세하게 서술하겠지만, 논의의 전개상 잠깐 언급한다면, 악양루 옛 터에 소악루를 새로 지은 이유는 소악루에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그에게는 소와라는 호가 있었지만, 소악루라는 이름을 자신의 호로 삼고 소악루에서 여생을 보냈다는 것을 이를 증거할 만하다. 다음의 자료는 그가 영월을 배경으로 <사군별곡>을 창작했을 가능성을 열고 있다.²⁵⁾

- (1) 壬子 以伯氏濂命出 肅莊陵參奉
- (2) 英廟壬子 以其伯氏濂(字仲遊 號養竹齋)之命 出莊陵參奉
- (3) 李滌 號小岳樓 肅宗朝 縣監 昔我 端宗大王 在寧越梅竹樓 作子規詞 雖聞 巷婦幼聞來 莫不殞淚 矧且小臣 亦是王孫 叨守寢廟 泣過清冷浦 又聞子規於 地者乎 遂作歌而哀之 名曰子規三疊

(1)은 <죽보>의 일부이고 (2)는 『陽川郡邑誌』 <鄉賢古蹟>조이며, (3)은 『해동가요(주씨본)』에 수록된 것으로, 이유가 지은 시조 <자규삼첩>의 창작 배경이 되고 있다.

먼저, (1)과 (2)의 자료를 정리하면, 전주이씨 왕손으로서 현감을 지낸

25) 金壽長, 『海東歌謠』(金三不 校注本)(서울 : 正音社, 1950), 34쪽, 83쪽. <자규삼첩>은 다음과 같다.

- (1) 子規야 우지 말아 울어도 속절업다 // 울거든 너만 우지 날은 어이 울리는다 // 암아도 네 술의 들을세면 가슴 알파 흐노라.
- (2) 에엿분 네 님금을 생각하고 절로 운이 // 하늘이 식였거든 네 어이 울렷시리. // 날 업슨 霜天雪月에는 놀로 흐여 운이던다.
- (3) 不如歸 不如歸흔이 돌아갈만 못흐거든 // 에엿분 우리 님금 므스 일로 못가신고 // 至今히 梅竹樓 달빛치 어제론 듯 흐여라.

소악루 이유는 임자년인 1732년(영조 8) 57세의 나이로, 큰형인 滌의 말을 듣고 장릉 참봉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얼마 동안 이곳에 머물렀는지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지만, 필자가 18대 손인 이상길 씨의 증언을 빌리자면,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3)은 소악루 이유의 창작 공간이 되었던 장릉과 관련된 내용이다. 莊陵은 강원도 영월에 있는 단종의 묘소인데, 수양대군이 중심이 된 계유정란(1453년)으로 폐위가 된 단종의 유배지이며 이곳에서 사약을 받고 승하하셨다. 그 후, 1698년(숙종 24) 노산묘를 장릉으로 추봉하고 1733년(영조 9)에 비각과 수복실, 정자각을 세워 이를 기념하였다.²⁶⁾ 그러므로 영월에는 비극의 주인공이었던 단종의 흔적이 지금까지도 남아 그 날을 기억하게 한다. 즉 유배지인 淸冷浦, 사약을 받고 돌아가신 관풍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子規詞>라는 시를 남겼던 子規樓²⁷⁾, 그리고 주검이 묻힌 장릉 등이다. 단종과 관련된 이러한 삶의 흔적들은 가사 <사군별곡>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사군별곡>은 총148구로 이루어진 중편 가사이다. 이 작품은, 巴江의 소악루 一漁翁이 장릉 참봉으로 부임하게 된 경위를 밝히는 서사(1~18구)로 시작한다. 본사(19~118구)에서는 南漢城-三臣祠-開元寺-利川-忠州-吳甲-可興倉-堤川-木溪-羊淵驛-角斤關-寧越-淸冷浦-莊陵의 路程과 곳곳의 아름다운 경치를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결사(119-148구)에서는 退溪先生이 지은 <遊山錄>(丹山山水記)을 소매 속에 携帶하고 아름다운

26) 동방미디어 제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莊陵” 참조.

27) 이 자규루는 세종 10년 당시, 군수로 있던 신원근(愼元近)이 창건하여 누명을 梅竹樓라 하였으나, 그 후 단종께서 자주 누에 올라 자규시까지 지었다 하여 후인이 子規樓라 불렀다는 것이다. 단종이 자규루에 올라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한 편의 ‘자규사(子規詞)’ 전편이 누각에 기록되어 있다.

月白夜蜀魂 // 含愁情依樓頭 // 爾悲我聞苦 // 無爾聲無我愁 // 寄語世上苦勞人 // 愼莫登春三月子規樓

(해석: 두견새 슬피 우는 달 밝은 밤에 // 수심을 안고 누각에 기대었노라. // 피나게 우는 네 소리 듣기 괴롭구나 // 네 울음 없으면 내 시름도 없을 것을 // 이 세상 괴로움 많은 사람들아 // 춘삼월 자규루엘랑 오르지 마소.)

곳마다 玩賞하였던 心境을 述懷하고 淸風 寒風樓를 거쳐서 莊陵에 도라와서 다시 보고 싶은 애뜻한 心情을 吐露하면서, “忽然이 느라가서 / 다시 보고 오고지고.” “明春에 쫓 피거든 / 다시 오면 아니 보랴.”라는 餘韻 있는 말로 매듭짓고 있다.²⁸⁾

다음으로 <사군별곡>의 내용 중에 소악루 이유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위의 증거로 삼으면서 작자를 찾아가 보기로 한다. 아래의 ①은 소악루 이유가 장릉 참봉으로 떠나기까지의 동기와 감회를 적고 있는 것으로 노래의 서사 부분이다.

① 巴江에 病든 主人 岳樓에 便이 누어 // 梅花를 벗을 삼고 거문고를 戲弄하니 // 압 江을 못건넌지 十年이 돌히로다. // 造化翁 식인 대로 왔다 가라더니 // 漁樵에 숨은 닐홈 뒤라셔 들어던지 // 白首 齋郎이 벼슬도 貴커니와 // 늘고 病든 몸이 못가기로 定히더니 // 一家 親戚들이 戲弄하며 勸흔 말이 // 抱關 擊坼을 넷사름도 ㅎ여시니 // 栗리에 陶處士도 彭澤令 지내얏고 // 桐江에 嚴子陵도 世上에 나왔거든 // 小岳樓 一漁翁이 그대도록 놉뎡던가 // ㅎ몰며 寧越 짜히 山水로 有名히니 // 金剛山 느린 고덕 四郡이 껏히로다. // 江湖에 生長하야 네 性癖을 내 알거니 // 國內 名勝地를 다 보랴 願이로되 // 平生에 自便키로 게을너 가라더니 // 機會가 도하시니 어이 아니 가라는다.

(강전섭 교수 교정본 ; 1~18 / 148구)

①의 서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을 밝힐 수 있다.

첫째, ‘巴江’은 陽川의 옛 이름인데, 지금의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을 지칭하며, ‘岳樓’는 그곳의 궁산에 있는 소악루를 일컫는다. 소악루 주변을 세거지로 살아 왔던 이유는 악양루 옛 터에 소악루를 다시 지었다. 그는 그곳에서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를 벗하며 거문고 가락에 노래를 부르면서 자연을 완상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소악루 이유는 57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장릉으로 제사를 모시

28) 강전섭, 위의 논문(2003), 1~15쪽 참조.

러 떠나는 자신을 ‘白首 齋郎’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그리고 장릉참봉으로 떠나게 된 동인으로 ‘一家親舊’들이 권한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구체적으로 (1)의 기록으로도 알 수 있듯이 큰 형 李愷을 비롯한 주변의 일가친척들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파강에 묻혀서 소악루를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유를 초야의 一漁翁에 비유하면서, 자연에 나고 자란 성벽으로 국내의 명승지를 다 보기를 원했으니, 금강산이 곁에 있는 사군으로 떠날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② 仲秋 十四日에 비로소 江을 건너 (21/148구)

③ 羊淵驛 물을 먹여 角斤關 올라서니 // 莊陵이 咫尺이요 寧越이 여기로다 // 西江 비 누르듯고 淸冷浦로 내려가니 // 뒤흔튼 찡그리는 듯 물소리 슬피 운다. // 荒原 宿草에 夕陽이 빛짓는듯 // 냇 넘금 생각해니 自然이 목이 뻐다. // 먹음이 錯忽하야 섰다가 도로 안자 // 눈물[을] 다시[짓]고 寢廟를 바라보니 // 蒼梧山 그름빛치 松柏樹에 저무렀다 // 한숨 지고 내려나서 다시금 바라보니 // 츠라리 못보던들 이대도록 슬플소냐. // 六臣祠 尋陵하고 拜鶴樓에 올라 안자 // 四面을 도라보니 觸目이 傷心하다 (31~43/148구)

④ 그 중에 늙은 峯이 몇길인동 어이 알니 // 兩劍을 빼쳐내야 碧空에 세워시니 // 楚霸王 吳江 ㄹ의 성내야 던진 칼이 // 憤氣를 못니기여 예와서 넓터선가. // 豊城 寶劍이 斗牛星을 쏘았는 듯 // 秦皇의 채를 비러 저돌을 몰아다가 // 小岳樓 압희 노코 一生을 보고지고. (81~85/148구)

②는 이유가 장릉 참봉으로 부임 받은 1732년 중추 14일에 비로소 한강을 건넜으며, ③에서는 영월에 이르자 단종의 슬픈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비련의 감회를 잘 적고 있다. 또한 노래의 후반부인 ④는 龜潭의 전경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유는 그곳의 기암괴석을 옮겨와 자신의 거처지인 소악루 앞에 놓고 일생동안 보고 싶다는 소망을 그려내기도 한다.

지금까지의 논거와 서술을 요약하여 본다. 새로운 가사 <사군별곡>은

소약루 이유의 작품임이 분명하다. 그는 1732년, 57세 가을, 큰 형 이강의 권유가 동인이 되어 장릉참봉으로 부임 받는다는 사실을 적고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세거지였던 양천의 소약루를 떠나 강원도 영월의 장릉에 도착하기까지의 여정을 노래한 기행가사를 창작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동북 현감, 송덕 찬양의 치인

지금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다빈치코드』의 암호처럼, 『古時憲書裏寫本歌詞集』에 福川 李太守라고 기록한 필사자의 증언은 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러한 작업은 암호를 풀어 가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복천’은 어디이며 ‘이태수’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먼저 ‘복천’을 살펴보기로 하자. 1895년에 편찬된 『同福縣邑誌』 <郡名>조의 다음의 기록은 문제를 해결하는 직접적인 자료가 된다.

豆夫只 龜城 甕城 福川 蘿菴

즉 복천은 동북의 옛 이름 중의 하나인데, 현재는 전남 화순군에 편입되어 있는 동북면이 바로 그곳이다.²⁹⁾ 그런데 동일한 자료의 <先生案>조에는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기록이 함께 존재한다. <선생안>이란 관아에서 전임자의 성명·직위·생년월일·본적·재직 기간 등을 기록한 책이다.³⁰⁾ 바로 이곳에 다음과 같이 동북 현감을 지낸 이유의 재임 기간을 꼼꼼하게

29) 同福은 백제의 豆夫只縣을 신라 경덕왕 때에 고친 이름으로 1914년 화순군으로 편입되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40, 全羅道, 同福 참조.)

『三國史記』 36, 地理志 : 龜城 甕城 福川 蘿菴

30) 『한국한자어사전』 권1(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 391쪽.

『備溪隨錄』 9, <教選之制, 學校事目>, 諸學師長 置先生案 錄前後任人 并書任遞年月 使當任者 有所考閱而欽戒

적고 있다는 사실이다.

李滌乙卯八月到任戊午六月貶遞

위의 기록에 근거한다면, 이유는 1735(乙卯;영조 11)년 8월에 동복 현감으로 부임하였고, 어떤 까닭인지 알 수 없지만, 1738(戊午;영조 14)년 6월 강등되어 현감직을 그만 두었다는 것이다.³¹⁾ 한편, 이유의 개인사를 적고 있는 족보 『全州李氏宣城君派塔源續譜』와 『陽川郡邑誌』 두 자료의 기록은 이유의 동복 현감 재임 기간이 앞의 자료와 상이하다.

甲寅拜同福縣監 丁巳棄官 士民立石頌之

甲寅拜同福縣監 丁巳棄官而歸 士民立石頌之

위의 기록대로라면 이유가 동복에서 현감을 지낸 시기는 1734(甲寅;영조 10)년부터 1737(丁巳;영조 14)년으로 앞의 기록보다 1년씩 빠르게 기술되어 있고, 폼체된 것이 아니고 스스로 그 직위를 버렸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임기간에 관하여 앞의 두 가지 상이한 기록 중에서 어느 것이 신빙성이 있을까. 필자는 당연히 공식적인 기관에서 현지에서 있었던 사실만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同福縣邑誌』의 <先生案>조의 기록이 더욱 믿을 만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편찬되는 족보에서는 숫자상의 이러한 오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논의로 볼 때, 이태수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즉 태수는 군수를 일컫는 말로써,³²⁾ 1735(乙卯;영조

31) 貶遞란 治績이 좋지 못한 守令이 考課의 하등을 맞아 갈리는 것이다. 『한국한자어사전』 권4(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92), 216쪽 참조. 이 외에도 <선생안>에는 벼슬을 그만두게 된 사유가 辭遞, 啓罷, 罷遞, 移遷, 身故, 遞歸, 瓜遞, 臺罷 등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32) 太守란 조선시대 郡守를 달리 이르던 말이다. (『與猶堂全書』, 雅言覺非 : 太守 使君 本皆尊稱 太守者 郡守也 而諸縣令長 咸爲所領其職 與今之監司不甚相遠 使君子 奉命之臣也.)

11)년 8월부터 1738(戊午;영조 14)년 6월까지 동북 현감을 지낸 소악루 이유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시가 창작에 조예가 깊었던 소악루 이유는 장릉 참봉으로 부임 받아 가면서 시조 <자규삼첩>과 <사군별곡>을 짓기도 한 인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필자는 소악루 이유의 가사 4작품 중, <충효가>는 동북 현감 재임 시절에 이곳 백성들을 교화하고 훈육할 목적으로 창작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추론하여 본다. 이유가 이곳을 떠나고 난 뒤, 동북의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송덕비를 세웠다는 점에서 충분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필자는 소악루 이유의 송덕비가 동북면에 실제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라도 화순군 문화재담당관과 면담하였으나, 아쉽게도 현 전하지 않는다는 답을 얻었다. 아마도 송덕비가 당대에는 있었을 터이지만, 오랜 기간이 지나면서 유실되었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한다.

소악루 이유의 <충효가>는 총 47구의 짧은 가사인데, 당대 국가 윤리의 바탕이 되었던 ‘충’과 ‘효’의 덕목을 백성의 정서적 감응에 호소하는 필치로 서술하고 있다. 먼저 이 작품의 전반부(1~22구)에서는 가정 윤리를, 후반부(23~40)에서는 사회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가정이 국가를 이루는 기반으로 그 우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작품의 일부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전반부:1~21구)

슬프다 빙성드라 내말슴 드러스라 // 네몸이 뉘몸이니 부모의 몸아니다 // 열쫂빅 설워서 비알코 겨우나어 // 두손을 품의품고 두져줄 서러먹여 // 젓업스면 밥을십어 입다혀 머여내어 // 기저기에 쫂오좁을 밤낫즈로 겨두워서 ... (중략) ... 츱식이 불순흐 며 어진부모 모지느니 // 西山의 지는 희를 네어이 머여실다 // 부피 업순휘며 뉘게다 효도흐리.

(후반부:22~47구)

슬푸다 빙성들아 내말슴 드러스라 // 네짜히 뉘짜히니 우리님군 짜아 니냐 // 마물은 밧 도흔논니 다님군의 짜히요 // 늘근이와 어리니가 다님

군의 百姓이라 // 즈식이 열리라도 扈父母의 즈식이요 // 百姓이 만이라
도 扈님군의 百姓이라 …(중략)… 忠臣 이면 孝子되고 孝子면 忠臣된다
// 忠臣 孝子が 扈가진줄 모을소냐 // 아마도 上下人民들이 忠孝을 힘써스
라.

이 작품은 조선조 향촌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바로 잡기 위하여 창작된 오륜가나 훈민가류에 속한다.³³⁾ 이 유형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송강 정철이 지은 <훈민가>를 들 수 있다. <훈민가>는 송강이 강원도 관찰사 재임 시절에 그곳 백성들을 교화할 목적으로 창작한 것이다.³⁴⁾ 이와 동일선상에서, 소악루 이유는 동복 현감 재임 시절에 그곳 사민들을 위하여 <충효가>를 제작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노래로까지 백성들을 훈육하였기에, 그들의 존경과 찬양을 받았을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이 지난 현감을 위하여 송덕비를 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다. 특히 이곳 동복을 포함한 화순군은 충절과 예향으로 이름난 곳이라는 점은 그것을 뒷받침한다.³⁵⁾

3. 양천의 소악루, 강산 주인으로서의 삶

양천은 소악루 이유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생활과 창작의 공간이다. 이곳에서 태어났으며, 몇 차례의 관직 생활을 한 시기를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재건하였던 소악루에서 자연을 벗하며, 假漁翁의 삶을 즐겼다. 옛 이름이 巴陵이었던 양천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인데, 바로 소악루는 이곳 궁산에 자리 잡고 있다.³⁶⁾ 필자가 현장 답사를 다녀왔던 5월 중순에는 활짝 핀 철쭉이 그 자태를 뽐내고 있었다. 정상을 향하여 한참을

33) 장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서울 : 한길사, 1999), 229~257쪽.

34) 권두환, 「목소리 낮추어 노래하기 -송강 정철의 <훈민가>」, 『한국고전시가작품론2』(서울 : 집문당, 1992), 533~539쪽.

35) 『同福縣邑誌』<人物> 조와 전남 화순군 군청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참조.

36) 현재 궁산에는 양천향교가 남아있어 그 때의 옛 자취를 느끼게 한다.

올라가다 보니 언덕 중턱에는 소악루가 자리 잡고 있었고 누대 앞으로는 삼각산을 배경삼아 한강의 시원한 경치가 펼쳐져 있었다. 이러한 자연적 여건으로 볼 때, 예술과 문학 활동의 근거지로써 이곳이 선택되어졌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로, 소악루를 중심으로 이유가 이곳에서 어떠한 생활을 영위했는지 문헌 자료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자.

(1) 岳陽樓舊址 有小岳樓 李縣監滌(字仲久 號笑窩 又號小岳樓)所構 英宗朝以同福縣監棄官而歸 模得中國岳陽制度 創建之 名曰小岳樓 與趙悔軒觀彬尹圃巖鳳朝³⁷⁾李槎川秉淵 諸名士酬唱 風流勝槩 擅名一時 黃正卽嘖詩曰 斯樓高下渾相合 列岫如屏江作池(遺址 有鑿石盥濯處 時人謂之盥巖)

(2) 甲寅拜同福縣監 丁巳棄官而歸 士民立石頌之 作歸去來詞 公早文章著世 氣節卓犖 與屏溪南塘討論 人物心性 同異之辯 以詩酒風流 名于一世 世稱江山主人

(3) 巴陵 卽唐人所稱小岳陽 公模得岳樓制度而創建之 名曰 小岳樓 以詩酒琴歌 逍遙其間 趙悔軒觀彬尹圃巖鳳朝李槎川秉淵 諸公往往來會酬唱 有文集十卷時調數首 및 小岳樓復元見首卷³⁸⁾

(1)은 『陽川郡邑誌』 <樓亭>조이며, (2)는 같은 책의 <鄉賢古蹟>조, (3)은 『全州李氏宣城君派璿源續譜』이다. 이 기록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유가 소악루를 짓게 된 유래, 소악루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문학 활동과 교유 의 인물, 그리고 이유의 저술과 시가 창작 등이 총체적으로 나타난다.

먼저, 소악루를 짓게 된 경위를 살펴보자. 파릉은 중국인들이 작은 악양

37) 『양천군읍지』에는 圃巖 尹鳳九로 적혀 있는데, 이는 오기임.
38) 이유가 악양루 옛 터에 소악루를 재건할 당시에는 지금의 강서구 가양동 산4번지 성산 동쪽 기슭에 있었는데, 1994년 6월 25일 신축하면서 산8번지 성산(城山) 상봉 부근으로 옮겨 준공되었다. (정규승이 정리한 『소악루 현역기』와 후손 이흥신·이상길 씨가 추진 하고 강서구청이 주관한 소악루를 소개하는 안내판을 참조하였다.)

루라고 불렀다.³⁹⁾ 왜냐하면 그곳의 경치가 악양루와 맞먹는다는 점에서이다. 이러한 이유로 그곳에는 누가 지었는지는 모르지만, 악양루가 있었다 한다. 그러나 이유가 소악루를 짓기 전까지, 그곳에는 누대는 없고 그 터만이 남아 있었다. 이유는 중국 악양루의 제도·법식을 모방하여 이 자리에 소악루를 지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소악루를 지은 시점에 대하여 (1)과 (2)에서는 동북 현감을 버리고 양천으로 돌아온 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1738년 6월 이후로 상정되나, (3)은 특별하게 그 기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에서 필자는 <사군별곡>은 작자 이유가 장릉 참봉으로 부임 받아, 고향인 양천의 소악루를 떠나 영월을 향하여 가던 감회를 적은 기행가사로써 1732년경에 창작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것을 증거 삼는다면, 이유가 소악루를 지었던 시기는 동북현감을 그만 두고 양천으로 귀향한 1738년 6월 이후가 아니라, 장릉참봉으로 부임 받았던 1732년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소악루를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이유는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남당 한 원진(1682~1751)과 인간과 사물의 심성에 대하여 논하는가 하면, 회현 조관빈(1691~1757), 포암 윤봉구(1680~1761), 사천 이병연(1671~1751) 등과 교류하면서 그곳에서 술 마시며 거문고에 노래를 부르고, 시문을 주고받기도 하였다.⁴⁰⁾ 이러한 그를 두고 세간에서는 ‘강산주인’이라고 불렀

39) 선조 39년 (1606. 4.11)에 사신으로 왔던 한림학사 朱之蕃이 이곳의 객관에 와서 노닐며 巴陵館이라 이름 짓고 차필 현관을 걸어 놓았다 한다. 그는 이곳 경치에 매료되어 李太白의 <登金陵鳳凰臺> 시의 시상을 빌어 이렇게 적고 있다.

三山半落青天外	삼산은 반이 푸른 하늘 밖으로 떨어지고
二水中分白鷺洲	이수는 가운데 백로주를 가른다.
天古謫仙先我得	하늘 속 옛 이적선이 나보다 먼저 얻었으니,
夕陽投筆下西樓	석양에 붓 던지고 서쪽 루를 내려오네.

강서문화원 편, 『강서 문화와 역사』, 2002, 298쪽 참조.

40) 조관빈의 『회현집』에는 <贈同福李使君涿>, 윤봉조의 『포암집』에는 <與衡宰訪小岳樓>, <小岳樓共賦>, <次李進士涿寄示韻>, <疊關毫兩韻謝李上舍涿 送酒>, <和李進士涿 寄別詩> 등 여러 편의 시가 있으며, <答李參奉涿>라는 책도 있어 이유와 이들과의 교류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으며, 시문집 10권과 시조 여러 수가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그러나 이유의 시문집의 실존 여부를 위하여 현전하는 고서 목록 등을 찾아 헤매었으나, 찾을 길이 없었다. 이후에 이유의 후손들과의 면담에서 이유의 저서는 보존 과정에서 유실되어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다행히도 시가 몇 편이 남아 있어 그의 문학세계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⁴¹⁾

이유는 동복현감을 그만두었던 1738년 이후부터 세상을 떠나던 1753년 9월 2일까지 줄곧 이곳 소악루에서 여생을 보냈다. 바로 이 시기에 조선 시대 진경산수화의 畫聖인 謙齋 鄭澈(1676~1759)이 양천 현감으로 부임하여 왔고, 이곳의 경치를 그림으로 생생하게 남기고 있다는 사실에서 소악루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겸재는 소악루 이유와 시문을 주고받기도 하였던 사친 이병연과는 이상적인 예술의 동반자였다. 겸재가 양천현감으로 부임하던 1740년(영조 16)부터 이 두 사람은 양천의 명 승경을⁴²⁾ 배경으로 서로 ‘詩畫換相看(시와 그림을 서로 바꾸어 보기)’을 약속한다. 이러한 약속은 겸재가 양천 현감을 그만 두던 1745년(영조 21)년까지 계속된다. 겸재의 여러 편의 작품 중에서, 특히 <소악후월>과 <소악루>는 한강을 배경으로 소악루 주변의 경치를 사진처럼 그려낸 것이다. 이 두 작품 중에서 <소악후월>은 ‘시화환상간’을 약속했던 사친 이병연의 다음의 시를 보고 나서 그린 것이다.

巴陵明月出 파릉에 밝은 달뜨면
先照此欄頭 이 난간 머리 먼저 비친다.
杜甫無題句 두보 시에 제구 없는 것
終爲小岳樓 필경 소악루 뿐이리.

41) 시조 <자규삼첩>과 필자가 이 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가사 4편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42) 파릉 팔경 ; 1. 楊江漁火 2. 木覓朝暾 3. 岳樓淸風 4. 桂陽落照 5. 杏洲歸帆 6. 開花夕烽 7. 寒山暮鐘 8. 二水驪眠 등인데, 세 번째에 ‘소악루의 쾌청한 바람’ 풍경이 들어 있다. 출전 『陽川郡邑誌』

사천의 시에 그림으로 화답하였던 겸재의 <소악후월>을 간송 최완수 선생의 해설로 감상하면서 소악루의 정취를 느껴보자.⁴³⁾



이 그림은 소악루에서 달맞이 하는 것이다. 왼쪽 아래에 소악루가 있고 남산 너머로 보름달이 떠 있으며, 달 아래 切頭山이 있고 오른쪽엔 탑산, 두미암, 선유봉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다. 또한 『양천현읍지』 <누정>조에서도 황진이 “斯樓高下渾相合 列岫如屏江作池(이 누각 아래 위가 서로 합치고, 여러 산은 병풍같이 연못을 만들었네.)”라고 그 풍경을 읊고 있다.

위의 그림과 시처럼 아름다운 경치에서 성장하고 노년을 이곳에서 보냈던 소악루 이유에게 소악루는 그의 문학과 창작의 공간이었다는 것은 당연하다. 그의 작품으로 추정되는 <玉京夢遊歌>는 이러한 예술적 분위기에서 창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총 186구로 이루어진 <옥경몽유가>는 천상의 세계인 백옥경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꿈 속 구조이다. 평생 이유가 소악루에서 꿈꾸었던 문학적 이상 세계를 펼쳐 보이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몽유자인 소악루 이유는 최고의 시성인 이태백, 두보, 한

43) 최완수,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서울 : 범우사, 1999), 128~131쪽.

유, 한고조 등과 힘들었던 일생을 차례로 대화와 토론으로 술회하기도 한다. 바로 이 대목이 지금까지 이 논문에서 논의하였던 소악루 이유의 삶의 모습과 일치하고 있다.

<옥경몽유가>에는 이유가 자신의 일대기를 고백하는 부분이 29구부터 98구까지인데, 70구나 차지하는 다소 많은 분량이다. 화소별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자신은 동방 헌강대왕의 자손이며, 연 삼대 등용되었고 일세에 빛나고 빛났다.

② 그러나 자손이 불초하여 가성이 떨어지고, 어려운 처지의 황손이 되어 노래를 벗하며 한량한 삶을 추구한다.

③ 13세에 자사와 경전을 모두 독파하고 성학에 힘써 공자를 만났으며, 왕손의 처지에서 요순과 임금의 뜻을 헤아릴 수 있었다.

④ 또한 주역에 힘써 10년이 넘어서야 그 원리를 깨달았으며, 자신의 할 도리를 늘어서까지 힘썼다. 이렇게 경전의 말씀대로 사는 자신을 아이들까지 비웃는 것 같다.

⑤ 이에 <소악루>에 올라 풍경을 예찬하기도 하며, 물가에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자신의 어옹의 삶을 찬미하기도 한다. 자신이 타는 현금을 알아듣는 이 없음을 탄식하며, 인간 영육을 멀리하고 자연과 일체가 되어 사는 삶을 노래한다.⁴⁴⁾

위의 일생 담을 각 항목에 맞추어 소악루 이유의 약전, 그리고 <소악루 현액기>와 비교하여 <옥경몽유가>가 소악루 이유의 걸작이라는 것을 증거 삼고자 한다.

① 소악루 이유는全州李氏로 정종의 제4왕자인 宣城君의 9세손이다.

② 그의 五代祖父인 대구부사 李遵道(1532~1584)는 栗谷 李珥(1536~1584)와 절친한 벗이었다. 이준도의 손자이자 이유의 曾祖父인 李命運은 광해군이 모후인 인목대비 연안김씨를 폐위하려 하자(1613) 홍문관 교리

44) 김팔남, 앞의 논문(2005), 81~82쪽 참조.

벼슬을 버리고 양천현 현내면 고양리 한강 기슭으로 물러 나와 살게 됐다.

③~④ 그의 집안은 율곡계의 조선 성리학통을 대대로 계승하고 있는 왕손 사대부 가문이라 생활 안목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었다. 뿐만 아니라 이유 자신도 일찍이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이 나고 벼슬에 뜻이 없어 오직 성리학의 연구와 詩와 風流로 一世에 이름을 떨치니 세상에서 江山主人이라고 했다. 따라서 그와 사귀던 인사들은 당대 최고의 성리학자이거나 최고의 풍류문사였다.

⑤ 본디 岳陽樓는 중국 호남성 湘江道 岳陽縣 縣城 西門의 門樓 이름이다. 이곳에 올라서면 동정호가 정면으로 보여 경치가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그래서 벌써 唐 玄宗 開元 4년에 뒷날 중서령(中書令:재상)을 지내는 張說이라는 이가 이곳 현령을 지내면서 이 지방 才士들로 하여금 악양루에 올라가 시를 지어 재주를 다투게 하니 이때부터 이곳은 천하의 명승지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이에 증조부인 天地 李命運(1588~?)때부터 이곳 城産 동쪽 기슭을 차지해 살아온 李滌는 그의 집 뒤 산기슭에 악양루와 똑같은 소악루를 지어 천하제일의 명승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따라서 <옥경몽유가>는 소악루 이유가 동복 현감을 그만두고, 고향인 양천의 소악루로 돌아와, 가어웅을 자처하며, 강산주인이 되어 그곳의 삶을 즐겼던 이 시기에 창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소악루 이유가 지은 것으로 판단되는 가사로 <망미인가>가 있다.⁴⁵⁾ 이 작품은 총 74구로, 정철의 양미인곡을 원류로 하는 사미인곡계 가사의 전통을 잇고 있다. 임은 군주로 표상되는 인물이며, 등장하는 여성화자는 임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여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임금을 향한 여성 화자의 정서는 크게 연모와 원모가 함께 교차되고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① 임을 그리워하고 이별을 한탄함, ② 늙음 탄식, ③ 기다림의 세월, ④ 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람, ⑤ 무정한 임을 원망함, ⑥ 정절과 헌신의 사랑, ⑦ 외로움, 그리고 꿈속 상봉을 기원함, ⑧ 고통의 세월, ⑨ 변

45) <망미인가>와 관련된 자세한 논의는 필자의 앞의 논문(2003) 279~305쪽 참조.

치 않는 나의 지조 ⑩ 임과 후생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원하는 내용이다.

<망미인가>의 노래 구절 중에는 ‘소악루’에서 풍류를 즐기며 사는 자신의 삶의 모습을 신선의 세계로 자랑하고 있는 대목이 있어서 눈길을 끈다.

岳陽樓 기친터의 小岳樓 새로지어 // 地勢도 높거니와 風景도 도홀시고
// 三山半落 靑天外라 二水中分 百鷺洲를 // 넋글구라 들어더니 絶景인줄
뉘알소니 (76~78/186구)

악양루 옛 터에 소악루를 새로 지은 사실과, 소악루 주변의 풍경, 그리고 1606년에 중국 사신으로 왔던 주지번이 이곳의 객사에 머물면서 지었다는 시 중에서 “三山半落靑天外 二水中分白鷺洲”의 두 구가⁴⁶⁾ 작품 속에 그대로 인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증거는 <망미인가>의 작자가 소악루 이유라는 것은 더욱 확실하게 한다. 이외에도 ‘소악루’에서 가어용의 한가로운 생활이 제88구의 “빈 낙대 들어 메고 岳樓로 도라 오니” 등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은 언제 지었을까. <망미인가>의 내용 중에서 창작 연대를 추론할 만한 특별한 단서가 보이지 않고, 또한 신뢰할 만한 다른 방증 자료가 현재로서는 구하여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소악루 이유의 개인적인 삶의 과정과 행적에 비추어 필자는 조심스럽게 그 시기를 추정하여 본다. 즉 그의 주요 생활과 창작의 공간이었던 소악루에서 지내던 그 어느 시기에, 신하로서 임금을 그리는 사모의 정을 정철의 <양미인곡> 빗대어 지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필자는 소악루 이유의 시문집이 하루 빨리 세상에 공개되어 소악루 이유의 삶의 전반적인 모습과 그의 문학세계가 총체적으로 밝혀지기를 기대 한다.

46) 위의 주31)번 참조.

IV. 새로 발견된 가사의 시가문학사적 의의

전 항에서 밝힌 것과 같이 소악루 이유가 창작한 새로운 가사 4편은 18세기 시가문학사의 구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다. 이유가 생존하였던 영조 대에는 노론과 소론의 갈등이 심화되어 두 번의 옥사를 빚었으며, 사회 변혁과 정치 안정을 위하여 경국대전이 편찬되었고, 탕평책과 균역법이 실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학문에 조예가 깊었던 영조는 문화진흥 사업에 앞장서서 스스로 서적을 찬술하였으며, 인쇄술도 개량하여 많은 서적을 간행·반포하여 일반백성들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는 문학 창작으로 이어져 많은 작가들에 의하여 다양한 갈래에서 새로운 주제의식을 반영하는 작품들이 다량 출현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악루 이유는 왕손의 후예라는 자긍심을 갖고 시가 제작에 관심을 표명하여, 각기 다른 주제 의식을 구현하고 있는 작품들을 남겼다. 필자가 앞에서 추론한 창작 시기별로 작품의 가치를 논하면 다음과 같다.

장릉 참봉으로 부임 받아 가면서 지은 것으로 파악된 <사군별곡>은 기행가사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인다. 양천의 소악루를 출발하여 영월의 단종 묘소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읊고 있는 이 작품은 작자의 본분에 작품의 비애적 정서가 맞추어져 있다. 또한 단종 애사를 주제로 삼고 있는 연시조 3수의 <자규삼첩>과 짝을 이루기도 하며, 단종의 7대손으로서의 동일체적 친족의식이 나타나기도 한다. 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에 이르러서는 애절한 필치로 비운을 토로하기도 하며, 자신이 겪은 일처럼 비통에 빠지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군별곡>을 연군가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사군별곡>은 단종애사를 주제로 삼는 여타의 시가와 더불어⁴⁷⁾ 18세기 기행·연군가사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라

47) 王邦衍(世宗-世祖代)의 <千萬里歌>가 있다. 金天澤, 『靑丘永言』 朝鮮珍書刊行會, 1948. 5. 5쪽에 收錄된 全文을 옮겨보면, 王邦衍, 世宗時人, 以金吾郎 押去魯山 及還彷徨 川邊 有感而作是歌 蓋卽此一曲 斯人愛君之誠可見矣 “千萬里 머나먼 길에 고은 님 여회옵 고/ 내 마음 둘 되 업서 냇궤에 안자이다./ 저 물도 내안궤도다 우리밤길 네늦다.(千里遠

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다음으로, 소악루 이유가 동복 현감 재임시절에 지었을 것으로 여겨지는 <충효가>가 있다. 이 작품은 당시의 국가 시책에 부응하여 창작된 작품으로 생각되는데, 지방관으로서 그곳 백성들의 국가와 가정 윤리를 확립하기 위하여 교화와 훈육의 차원에서 제작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작품에서 소악루 이유는 교육 덕목이었던 ‘충과 효’를 백성들이 기쁨으로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일게 하기 위하여 일상적인 용어와 감성에 호소하는 시어들을 사용하고 있다. 47구라는 다소 짧은 분량은 작자의 이러한 목적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노래의 전반부에서 ‘효’를 후반부에서 ‘충’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의 윤리가 사회 국가의 윤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또한 이 작품은 愛景堂 南極曄의 <충효가>와 함께 18세기 충효가의 지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즉 소악루 이유의 것이 동복이라는 지역의 향촌사회를 결속시키며, 그곳 백성들을 교화하는데에 목적이 있다면, 애경당 남극엽의 것은 자신의 가문을 결속하고 문중을 선양하는 데에 창작의 의도가 있다.⁴⁸⁾

소악루는 이유에게는 삶의 터전이요 창작의 공간이었다. 이곳에서 당대의 지식인들과 시와 문을 논하기도 하고, 금가를 즐기기도 하였으니. 바로 이러한 분위기에서 그는 천상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옥경몽유가>를, 그리고 임금을 연모하는 <망미인가>를 창작하였다. 먼저, <옥경몽유가>는 꿈속 일이 액자의 형태로 나타나는 몽유 구조인데, 작자는 소악루를 터전으로 자연 속에 묻혀 사는 평범한 화자를 등장시켜, 화려한 천상의 삶을 영위하려는 의도를 보인다. 작자는 자연과의 합일, 그리고 그 속에서 스스로 적선이 되어 천상의 세계를 형상화하려는 인물이었다. 소악루의 꿈같은 경치를 배경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한 작자는 당대의 지식인답게 유가적인 삶과, 풍류와 낭만을 위한 도가적인 공간을 공유하였던 인물이었다. 따라

遠道 美人離別秋 此心無所着 下馬臨川流. 川流亦如我 嗚咽去不休. 『莊陵誌』”

48) 국윤주, 「애경당 남극엽의 시가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5, 32~37쪽 참조.

서 작자는 <옥경몽유가>에 자신의 이상향을 형상하기 위하여, 그 속에 옥망과 이념을 대화와 토론이라는 적절한 말하기 방식으로 고백하고 있다.⁴⁹⁾ 이런 점에서 <옥경몽유가>는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몽유가사의 계통을 잇고 있으며, 조선 후기 누정문학의 전개 양상과 영조 대를 살았던 당대 지식인의 삶의 방식을 살펴볼 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망미인가>는 연군을 노래하고 있는 정철의 <사미인곡>·<속미인곡>을 잇는 미인가계 가사라는 점이다. 작자는 사랑을 잃은 여성 화자에 자신을 빗대어 그를 향한 자신의 사랑의 깊이와 그리움을 형상화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인물의 설정과 표현법은 송강의 것을 계승하고 있다. 다만, 화법면에서 <망미인가>는 전반부와 중반부에서는 여성 화자의 독백이 쓰이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못 사람들의 의견을 자신의 고백적 진술에 끌어들이며 대화를 시도함으로써 사건이 클라이맥스로 치닫고 있다. 또한 '두어라 백운향에 올라가서 피셔볼가 흐노라'라는 하나의 구로 결사를 맺는 급진적 결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망미인가>는 기존의 미인가계 가사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표현 기법에서는 발전된 특성을 보이는 점에서 18세기 미인가계 가사의 대표적 작품으로 여길 만하다.

이렇게 볼 때, 왕족의 후예로 영조대를 살다간 소약루 이유는 강호를 벗삼고, 시문과 사상을 논하였으니, 문인이자 사상가로서 18세기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여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특히 이 시기의 지식인으로서 각기 다양한 주제 의식을 새로운 기법을 사용하여 가사 <사군별곡>·<망미인가>·<충효가>·<옥경몽유가>와 시조 <자규삼첩> 등 수준 높은 작품을 지었다는 점에서 한국시가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리라고 믿는다.

49) 김팔남, 위의 논문(2005), 91쪽 참조.

VI. 맺는 말

『古時憲書裏寫本歌詞集』의 출현과 공개는 시가문학사에 많은 의미를 던지고 있다.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13편의 가사 작품들은 18세기를 풍미하였으며, 많은 향유층을 두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의 대상인 <사군별곡>·<충효가>·<옥경몽유가>·<망미인가>는 본 연구자에 의하여 처음으로 본격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원 자료인 『고시헌서』에 거명되었던 작자에 대한 간단한 기록(福川 李太守 所作·自作)을 통하여 정확한 작자를 추론하여 내고, 창작 연대를 밝히는 일로부터 내밀한 작품의 분석과 평가에 이르기까지는 어려운 길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자료에 대한 이러한 기초적인 작업은 고전을 연구하는 학자에게는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고 생각된다. 작자와 제작 연대 등이 제대로 판명되지 않고는 작품의 전체적인 해석과 감상, 그리고 분석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위의 3작품의 경우에는 작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있어,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희망의 단서가 되었고, 필자가 새로 찾아 낸 방증자료를 증거로 위의 4 작품의 작자를 영조 대를 살았던 小岳樓 李滌(1675.3.8;숙종 1~1753.9.2;영조 29)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유는 장릉 참봉과 동북 현감을 지내면서 <사군별곡>과 <충효가>를 지었으며, 그의 대부분의 삶의 공간이었으며, 창작의 요새였던 소악루에서는 <옥경몽유가>와 <망미인가>를 남겼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는 자신이 직접 재건한 소악루를 스스로의 호로 삼을 정도로 사랑하였고, 이곳에서 문학과 학문을 즐겼으므로, 주변의 시인묵객들이 몰려들었다. 이 중에서 겸재는 양천 현령으로 자처하여 이곳에 왔고, 날마다 소악루와 한강, 그리고 멀리 내다보이는 삼각산을 배경으로 눈에 보일 듯 그 경치를 그려냈다.

지금 서울시 강서구 가양동 궁산에 자리 잡고 있는 소악루는 겸재의 그림 <소악루(小岳樓)>와 <소악후월(小岳候月)>이 1993년 세상에 알려지자,

이것을 토대로 1994년 6월 25일에 준공하여 복원한 것이다.

소악루 이유평가 생산해 낸 시조와 가사 작품들이 18세기 한국시가사에서 기행·연군·교훈·몽유가사의 영역에서 새롭게 재조명되기를 바라며 이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 『時憲書裏寫本歌詞集』
『全州李氏宣城君派塔源續譜』
『陽川郡邑誌』
『同福縣邑誌』
『槎川詩抄』
『小岳樓縣額記』, 정규승 정리
『悔軒集』
『圃巖集』
강서문화원 편, 『강서구 역사문화문화재』, 1999.
강서문화원 편, 『강서 문화와 역사』, 2002.
최완수, 『겸재 정선 진경산수화』, 서울 : 범우사, 1999.
강전섭, 『한국고전시가연구』, 서울 : 경인문화사, 1995.
강전섭, 「小岳樓 李滌의 <子規三疊>과 <四郡別曲>에 對하여」, 『고시가연구』 12, 한국고시가문학회, 2003, 1~15쪽.
김팔남, 「복천 이태수작 <망미인가>의 주제 형상화 고찰」, 『어문연구』 43, 어문연구학회, 2003, 279~305쪽.
김팔남, 「연정가사 <승가>의 실상 고찰」, 『어문학』 81, 한국어문학회, 2003, 221~243쪽.
김팔남, 「<옥경몽유가>의 이상 세계 표출 방식」, 『어문연구』 49, 어문연구학회, 2005, 67~94쪽.
김팔남, 「<춘면곡> 고찰」, 『어문연구』 26, 어문연구학회, 1996. 447~463쪽.
김동국, 「<회심곡> 발생고」, 『우리어문연구』 21, 우리어문학회, 2003, 205~230쪽.

권두환, 「목소리 낮추어 노래하기 -송강 정철의 <훈민가>」,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서울 : 집문당, 1992, 533~539쪽.

박규홍, 「석하 소장 고시헌서철에 필사된 시가작품」, 『서지학보』 8, 한국서지학회, 1992, 97~120쪽.

이태호, 「겸재 정선의 가계와 생애 -그의 가정과 행적에 대한 재검토」, 『이화사학 연구』 13·14 합집, 이화사학연구소, 1983, 83~92쪽.

장진영,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서울 : 한길사, 1999.

<투고일 : 2006. 6. 27. 심사일 : 2006. 7. 15. 심사완료일 : 2006. 7. 31.>

K C I

<Abstract>

A Couple of <Ga-Sa> Recently Found

Written by Lee Yu, So-Ak-Ru

- Focused on the Investigation of Author and Timing of Writing -

Kim, Pal-nam

This paper aims to re-investigate the author and the timing of the four songs, <Sa-Gun-Byeol-Gok>, <Mang-Mi-In-Ga>, <Chung-Hyo-Ga> and <Ok-Gyeong-Mong-Yu-Ga> in 『Go-Si-Heon-Seo-Yi-Sa-Bon-Ga-Sa-Gip』 which had been recently found and has many songs in the 18th century. Through this work, I am able to confirm that the author of four works above mentioned was Lee Yu who had lived in the period of King Yeong-Jo in Jo-Seon Dynasty between 1675 and 1753. He wrote <Sa-Gun-Byeol-Gok> and <Chung-Hyo-Ga> in the timing of the Manager of Jang-Reung(the Tomb of King Dan-Jong) and Local Governor in <Dong-Bok> county, now Dong-Bok-Myeon, in Hwa-Soon, Jeon-Nam. In addition, it seems that he wrote other two Ga-Sas, <Mang-Mi-In-Ga> and <Ok-Gyeong-Mong-Yu-Ga> living at So-Ak-Ru, a viewpoint located in now Gung-San(Hill) at Hwa-Yang-Dong, Gang-Seo-Gu, Seoul. It has been thought that the four Ga-sas by Lee Yu have been regarded as one of pioneers in Ga-Sa history in 18th century, in that those dealt with the multiple issues of traveling, moving king, teaching people and structure in dreaming.

Keywords : <Sa-Gun-Byeol-Gok>, <Mang-Mi-In-Ga>, <Chung-Hyo-Ga>, <Ok-Gyeong-Mong-Yu-Ga>, So-Ak-Ru, Lee Yu